



東洋最初の 完全 Graduate School

# 韓國科學院 17日開講

—最新建物, 最高の 實驗施設, 最優秀 教授陣—

우리나라 産業發展에 이바지하게 될 高級 科學頭腦養成을 위한 特殊 理工系大學院인 韓國科學院(원장 朴達祚)이 17일 정식으로 開講했다.

朴正熙 大統領의 設立 指示에 따라 3年 6個月만에 門을 열게 된 韓國科學院은 東洋에서는 처음인 Graduate Course School 즉 大學에 附屬되지 않은 獨立된 特殊 理工系大學院(태국에 비슷한 것이 있으나 不完全하다 함)으로서 國內外的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全天候 全日制 科學教育을 위하여 最新 建物 最高の 實驗施設, 최우수 교수진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과학원은 洪陵 서울研究開發團地內的 敷地 3만3천4백50坪에 25개의 강의실과 40여개의 실험실이 있는 本建物과 學生支援시설, 교원아파트 등 모두 10,5000명의 建物로 되어있다. 이제까지 投入된 건설비는 약 19억 원이며 74년까지는 25억 4천만 원을 투입할 豫定이다. 그리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는 74년까지 13억6천2백만 원이 계상됐는데 75년부터는 매년 약 12억 원이 所要된다고 한다. 또 오는 74년 봄까지는 39만분의 實驗機器와 60만볼어치의 圖書가 완전히 導入 확보케 될 예정이라는 것.

教授陣을 보면 教授 6명, 부교수 16명, 조교수 7명, 전임강

사 1명 비전임교원 8명, 總計 3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75년까지는 전임직 60명 비전임직 50명을 더 確保할 계획이다.

韓國科學院은 지난 3월 5일 一般學生 76명(그중 1명은 女子)과 產學制 學生 30명을 뽑았는데 이번에 제외된 生物工學科는 74년부터 學生을 뽑게 된다. 이들 學生은 教育을 받는 동안 무료로 기숙사에서 宿食하는 이외에 매달 2만원의 學資金을 받으며 兵役을 필하지 아니한 자는 3주간의 軍事훈련을 받으면 免除된다.

한국과학원은 韓國의 産業界를 위해 高級科學頭腦를 공급한다는 본래의 목적 以外에도 教授들이 스스로 研究 Project를 추진함으로써 產學協同을 이루고 敎科過程 靚성, 敎授法 研究 등에서 한국과학교육계를 先導할 것이다. 산 과학교육을 위하여 1년 32주(수업시간)중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복잡한 문제를 各學生에게 약 20문제 내외씩 풀게 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서 韓國科學技術研究所의 컴퓨터(CDC사이버 72)에 연결된 터미날을 설치할 계획이다.

한국과학원 施設중 特異한 것은 外部의 시설을 빌리지 않고 교육에 필요한 일체의 工作을 할 수 있는 工作室과 電子製品을 수리 개조할 수 있는 電子 營繕室 등이 있다. (편집부)

## 永住歸國한 李泰圭 博士

—韓國이 낳은 世界的 科學者—



韓國이 낳은 世界的인 科學者로서 이미 확고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美國「유타」大學의 李泰圭 박사가 돌아왔다.

그의 나이 벌써 71歲

韓國에 있으면 벌써 敬년되질할 나이인데 새로 발족하는 「韓國과학원」 교수로 부임하기 위해 歸國한 것이다.

日本에서 25년 美國에서 27년 모두 52년을 외국에 살면서도 韓國國籍을 고집해온 世界的인 化學者 李泰圭 박사는 忠南 에산에서 태어나 1919년 京城第一高普를 卒業하고 渡日, 「히로시마」高師와 「교토」帝大를 거쳐 同大學院에서 1913년 理學博士學位를 받았고 이어 同大學조교수로 시작, 43년에 教授가 되었다 해방되던 1945년에 歸國. 서울大理工學部長을 거쳐 46~48년까

지 서울大學校 文理大學長을 역임했다.

이어 渡美 48~71년까지 「유타」大교수로 있다가 71년부터는 同大學의 명예교수로 있어왔다. 60년에는 「빈」에서의 國際原子力總會 韓國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66년부터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 고문으로 일해왔다.

그가 지금까지 發表한 論文은 105여편에 달하며 58년에 美國化學會로부터 표창, 60년에는 우리나라 學術院賞 수상, 71년에는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李박사는 앞으로 科學院에서 1주일에 1강좌 정도를 맡고 전 공분야인 촉매작용과 粘性, 액체이론등의 研究를 계속 하겠다고 했다.

# 韓國의 科學界展望은 밝다

## 새로운 理解찾는 努力이 生の 보람

### 부라틴博士 科學教育의 方向도 피력



1956년에 노벨賞을 받은바 있는 부라틴 (Dr Walter Houser Brattain) 박사는 16일 하오 8시5분 夫人과 함께 KAL기 편으로 來韓했다. 崔亨燮 科學技術處長官의 招請을 받은 부라틴 博士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3번째의 노벨賞受賞物理學者다.

今年는 특히 트란지스터 發明 25周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번에 트란지스터 發明者가 訪韓하게 된 것은 發展도상에 있는 우리나라 電子工業界는 물론 科學界에 큰 보람을 주는 일인 것이다.

부라틴 박사는 23일까지 머무르면서 4차례의 講演을 통해 그의 해박한 지식과 귀중한 體驗談을 털어놓았는데 우선 17일에는 첫 開講式을 가진 韓國科學院에서 開講記念 特別講演 (主題: 半導體의 기원)을 하여 한국과학원의 正式 出發을 장식했다. 그리고 노벨 수상자로선 처음으로 서울 高等學校에서 碩學의 少年 시절을 회상하는 강연을 했는데 이는 어린 학생들에게 과학에 對한 동경과 科學하는 마음을 심기 위한 것이다.

박사는 서울大學校에서도 特別講演을 (主題; 半導體 응용의 現況 및 展望)했으며 一般을 위해서는 電子工業의 未來라는 主題로 講演했다.

부라틴 박사는 1948년 美國 Bell Telephone 研究所에서 동료인 J. Bardeen과 함께 Transistor를 발명하여 56년에는 Transistor 理論을 펴낸 半導體物理의 權威로 認定받고 있는 世界的인 物理學者이다.

트란지스터를 發明, 人類社會에 크게 寄與한 功勞者며 노벨 物理學賞을 받은 바있는 世界的인 科學者 부라틴박사는 「韓國의 科學界展望은 매우 밝다」고 첫소감을 밝혔다.

18일 기자의 질문을받고, 韓國에 머무른 時間이 짧아 같은

모르겠다고 전제한 부라틴博士는 그러나 崔亨燮科技處長官과의 面談에서 「科學者들을 保護育成하려는 努力이 두드러졌으며 이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음 이렇게 말했다.

부라틴博士는 또 「文化와 哲學이 다른 나라가 科學과 技術을 導入하려면 깊이 관찰하고 검토해서 적성에 맞는 것을 導入해야 한다」고 말한다음 「韓國科學院이 知識을 活用,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社會에 공헌하게 될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트란지스타 研究展望에 관해서 「과학은 항상 부단히 研究發展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展望은 모르겠다」고 밝히고 트란지스타를 發明한 것은 「固體의 性格觀察研究 도중 발견하게 된것이며 그 전날에도 몰랐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理想的인 科學教育을 묻는 질문에 「科學教育은 記憶 위주의 것이아니며 概念을 理解하고 發展시켜 結論을 내릴수 있도록 하는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科學과 工學의 差異點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전제 科學은 「事物의 現象이 어떠한 것인가 理解를 찾아 發展시키는것」이며 工學은 「科學에서 發見한 것을 經濟性이 있는 條件에서 實際活用이 可能하게하는 一種의 藝術이다」고 간략하게 설명하고 「科學을 어떻게 使用하느냐에 따라 좋게 또는 나쁘게 된다」고 했다.

부라틴博士는 이어서 「科學者가 社會를 獨裁해서는 절대 안되며 崇高 또는 조언자가 되어야 한다」고 科學者들이 社會에 臨하는 姿勢를 밝히고 自己도 美國에서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또는 專門家로 意見을 말한다」고 했다.

이 老科學者는 또 生の 보람이 무엇인가하는 물음에 「새로운 것을 理解하려고 努力하는 것」이라고 거침없이 말하면서 「우리가 남는 시간을 헛되게 보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